e-Kiet 산업경제정보
제140호 (2003-03) 2003. 1. 13

# DDA 협상 동향과 향후의 협상 방향

〈요 약〉

○ 도하개발아젠다(DDA)는 농산물, 서비스, 非농산물, 무역규범(반덤핑, 보조금), 분쟁해결절차, 지적재산권, 환경 등 7개의 협상그룹을 중심으로 작년 2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져 금년이 협상의 최대 고비로 부각

○ 미국, EU 등 선진국들은 UR의 결과에 불만을 가진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개방을 얻어내는 데 협상의 초점
- 농산물 분야에서는 미국을 필두로 농업 보조금의 대폭 감축, 관세율(특히 고관세 품목이 목표)의 대폭 인하를 위한 적극적인 제안
- 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미 각국이 상대국들에 서비스 각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시장 개방을 위한 리퀘스트(Request) 리스트를 제출한 상황

○ 우리나라, 일본 및 여타 개도국들은 공산품 분야의 시장접근 확대, 선진국들에 의해 남발되고 있는 반덤핑 조치를 제한하고자 하는 WTO 협정의 개정에 기대

○ 국제통상협상의 성패를 국제통상협상 테이블에서의 성패로만 보는 시각을 바꿀 필요
- 국내에서 이익집단을 설득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며, 협상에서 얻어질 이익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을 펼칠 수 있는 것은 협상의 초기 단계에서나 가능한 일

○ 협상의 결과 이득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집단의 호응을 얻어내는 것도 매우 중요

○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우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며 협상에서 공동보조를 취할 국가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

產業硏究院
www.kiet.re.kr

## 농산물, 서비스로 출발 공산품도 함께 협상

○ 미국, EU 등의 선진국들이 새로운 국제통상협상의 필요성 제기

- WTO 출범 이후, 선진국들은 역점을 두었던 농산물 · 서비스 분야에서의 시장개방이 불만스러웠다는 판단
- 무역과 환경, 무역과 투자, 무역과 경쟁정책, 무역과 노동기준 등의 뉴이슈 분야의 논의를 협정으로 구체화하고자 하는 의도도 추가

○ 개도국들은 WTO 협정 자체가 선진국들의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개도국에는 일방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입장에서 반대

- 여기에 세계화에 반대하는 NGO 등이 가세하여 새로운 라운드는 선진국들의 기대보다 늦게 출범

○ 개도국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, 무역과 개발을 연계하여 논의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걸고 협상의 이름도 종래의 라운드라는 표현을 지양하고 도하개발아젠다(Doha Development Agenda : DDA)로 명명. 이 밖에도,

- 농산물, 서비스 외에 공산품 시장접근, 반덤핑 등도 논의키로 합의
- 개도국에 대한 특별 대우를 고려하기로 결정

## 선진국들은 농산물 시장의 실질적인 개방 추구

○ 미국, 호주 및 케언스(Cairns) 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UR 협상 결과는 물론, UR 협정 이행 과정에도 불만→농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개방 요구

- 이를 위해 농산물 수출에 대한 보조금의 감축, 국내보조의 감축, 관세율의 대폭 인하(특히 고관세가 대상) 요구
- 미국은 모든 농산물 관세를 25% 이하로, 감축 대상 보조금은 총생산액의 5% 이하로 감축할 것을 제안

○ 우리나라도 UR 당시 쌀시장 개방을 막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 특히 여타 농산물 분야에서 크게 양보하였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농산물 협상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

- UR 협상 당시의 어려움은 협상 초기에 UR 참여의 불가피성, 향후 한국농업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 과정이 미흡하였기 때문

## 서비스 분야는 업종에 따라 이해관계 엇갈려

○ UR 당시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임박한 것처럼 인식되었으나, 세계적으로 실질적인 서비스 분야의 개방은 크게 미흡했다는 평가

- 따라서 선진국들은 이번 DDA 협상에서 농업과 함께 서비스 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올리려는 의도
- 개도국들은 역으로 서비스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요구

○ 이미 협상의 방식, 범위 등에 관해서 2000년부터 협상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매우 구체적인 수준의 각국 리퀘스트 리스트가 상대국들에 제출된 상황

- 우리나라는 해운, 건설, 유통, 통신 등의 분야에서 상당히 공세적인 입장이나, 법무, 교육, 시청각 등의 분야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수세적인 자세로 협상

## 우리에게 유리한 非농산물, 무역규범 분야는 불리한 요소 포함

○ 개도국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공산품 분야에서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지속적인 제거를 위한 공산품 시장개방 분야로서 출발

- 그러나, 이 협상그룹에 선진국들의 요구로 임수산물이 포함됨으로써 非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의 미묘한 어려움 대두

○ 非농산물 분야는 협상 전반적으로 한국은 적극적인 입장이나, 무역량이 미미한 임수산물 때문에 더욱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에 어려움

- 한국은 개도국의 고율관세와 선진국의 첨두관세를 동시에 해결하는 관세인하 방식을 포함한 제안서 제출

○ 한국, 일본 등이 주축이 되어 반덤핑 제소 요건, 덤핑마진 산정 및 피해판정 방식, 재심절차 등 WTO 반덤핑 협정에서 31개 항목의 개선을 요구 → 대부분의 국가가 동조

- 미국은 덤핑행위를 하는 수출국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는 반덤핑조치의 필요성 주장하며 반대 입장
- 보조금의 경우는 특별한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덤핑에 대한 논의를 희석시키기 위해 선진국들이 제기

## 국제통상협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수정 필요

○ 국제통상협상의 성패를 국제통상협상 테이블에서의 성패로만 보는 시각 수정 필요

- 국제통상협상은 국제협상 테이블에서의 협상 노력이 절반이라면, 나머지 절반은 국내에서 이익집단을 설득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

○ 협상 초기에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이득 혹은 적어도 협상에 참여하지 않으면 입게 될 손실을 잘 설명하며 홍보하지 않으면 협상 후기에는 협상의 부담만 부각되고 결국 그 분위기에서 수세적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

- 협상의 이익으로 제시되는 GDP 몇 퍼센트(%) 증가, 수출 몇 퍼센트 증가 등은 그 상대적 이익을 과소 평가 →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과 협상의 성공적 타결 시의 상황을 비교하면 협상 참여의 이익은 몇 배로 증대할 가능성

○ DDA 협상의 결과 이득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국내 제조업들의 호응도가 미흡

- 일본은 발빠르게 개별 공업협회 차원에서도 상대국 혹은 이해가 같은 나라들을 설득하는 데 참여

○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협상 과정에서 우리와 공동보조를 취할 국가군(Friends Group)을 만드는 일이 중요

- 우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나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의 핵심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공동보조 형성이 중요

김 도 훈
(선임연구위원 · 산업정책실)
dhkim@kiet.re.kr
(3299-3299)

※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.kiet.re.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.
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産業硏究院
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& TRADE

발행인 • 배광선 편집인 • 김도훈 편집 · 교정 • 조계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-9 (우)130-742 TEL 3299-3114 FAX 963-8540